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h1>보도자료</h1>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2년 7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7. 21.(목)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규성 과장(044-203-5320)	담당자	조성경 팀장(044-203-5316)	

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산업 간담회 개최 -
- 원자력 포함 필요성 및 인정기준 관련 검토사항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21일 15시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산업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22. 7. 21(목) 15:00 /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회의실
- ▶ 참석: (정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산업) 두산에너지,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연구기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논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필요성 및 주요 검토사항

- 지난 7.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
 - *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년 415GW에서 '50년 812GW로 2배 증가 전망(IEA, '22.6)
-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작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하여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하여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함
- 두산에너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산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조성경 팀장(☎ 044-203-53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